

2025년 02월 27일 목요일 시청자위원회

참석

회사 : 대표이사, 경영심의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 콘텐츠센터장, 보도센터 차장

위원 : 강문식 위원장, 김대중, 박병희, 박병현, 박성주, 조애숙, 안인수, 박성주, 나민수, 김정은

위원장

늦추워 때문에 봄꽃 축제 준비 시군 고민 많아 준비도 모두 봄바람과 함께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석 달 가까이 온 나라를 정치적 겨울로 몰아먹었던 계엄과 내란 정국도 이제 막바지 고비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이 종결되면서 이제 최종 심판만 남게 되었는데요. 정치의 봄, 민생의 봄을 함께 불러온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5년 2월 여수MBC 시청자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인 사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대표이사

경주로 가족여행을 다녀와서 느낀 부분이 많았습니다. 첫째로 도시 전체가 관광지로서 새로운 디자인을 얻는 특히 관광지 정비 수준을 넘어서서 야경 자체가 조명으로 야경을 새롭게 꾸몄는데 도시가 새로운 밤의 도시를 만난 관광도시를 만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보기가 좋고 관광객이 역시 3대 관광지 중에 하나로 거듭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호남에서 경북 특히 경북 쪽으로 여행을 갈 때는 먹거리를 늘 걱정을 하면서 가는데 5끼 정도를 먹었는데요. 한 번도 맛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메뉴랑 여러 가지를 보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맛있는 거를 다 갖고 왔습니다. 전략을 바꾼 거예요. 여수는 여수의 토속적인 것을 지키는 쪽으로 맛과 관광을 가고 있다면 거기는 특히 음식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호하는 것들을 일정 품질 이상으로 해내겠다는 도시 전체에 어떤 디자인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지역 여수랑 비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보도센터

보도센터 문영철입니다. 김종태 센터장이 오늘 좀 부재중이어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잘 정리해 가지고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잘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2월에 취재한 사안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는 현재 탄핵 심판 진행 상황 또 지역 여론 또 여순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포함 된 김계리 변호사에 대한 논란 또 기획단 재구성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보도했습니다.

여수 산단과 관련해서는 석유화학 산업의 현황과 정부 정책의 한계 또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 짚어봤고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서 지난 회의에서 여수 항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여수 공항이 짧은 활주로 또 콘크리트 둔덕 문제 등을 보도했고 또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거문도 인근에서 발생한 서경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발생 또 피해 현황 등 보도했는데 여수뿐만 아니고 전국 곳곳에서 선박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서 인명피해 막기 위한 구명

조끼 중요성에 대한 내용도 어제 뉴스를 통해서 다뤄봤습니다.

3월 계획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음 달에는 정치 상황이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3월 중순쯤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전망과 재판 결과 또 이에 따른 지역민들의 여론 등 함께 살펴보고 급변하게 될 정치 지형, 전남 의대 문제도 다음 달에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순천대 목포대가 통합의대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의대 정원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어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전망 또 대책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주력산업인 석유화학과 관광 철강 산업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위기 극복 방안과 또 기업들의 자구책 개선점 등에서 다뤄보고 또 주말에 방송되는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 짚어볼 예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날씨 잠깐 언급하셨는데 최근 건조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고 실제로 최근 지역에서도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논이나 밭 쓰레기 태우다가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 경각심 차원에서 뉴스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볼 계획입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서 여수공항은 과연 어떻게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을지 또 지역에서 요구사항은 뭔지 짧은 활주로 문제 또 다른 공항보다 높은 콘크리트 둔덕 문제들 한번 짚어 봤었고, 도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추진되고 있을지도 그때 한번 다뤄봤었습니다. 섬박람회 관련해서는 옛그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토론회 나와서 한번 예산 문제 관련 얘기했는데 전반적인 추진 상황하고 예산 증가 부분 뭐 그 부분도 좀 포괄적으로 제가 뉴스로 한번 다뤄봤고요. 우리 순천대 지역 대학 관련해서는 신입생 모집 순항되고 있다. 수시모집 정시모집 순천대 올해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2월 달 초에 한번 다뤄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도 우리 의대 문제 관련해서 짚 팔로잉 하겠습니다.

콘텐츠센터

2월에도 역시 정규 프로그램들 제작과 방송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성언의 음악식당>이 시간을 변경해서 2월부터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오부터 2시까지 방송이었는데요. 2월 3일부터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변경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코너들은 대부분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하의 소식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저희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 <15% 이야기>가 이달에 좋은 프로그램상 가 탔었는데요. 2024년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으로도 선정이 돼서 얼마 전에 제가 시상식을 갔다 왔습니다. 또한, 방통위 올해의 프로그램 대상 시상식에도 응모할 예정으로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센터에서도 지금 올해 프로그램 기획 및 공모 참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공모, 그다음에 방문진, 각 지자체 등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0일에는 방송사업센터하고 함께 여수 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획 공모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프로그램 제작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mbc 공동 기획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둘레길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한국전파진흥협회의 공모를 참여해서 제작 지원이 되면 지역 MBC 8개사가 공동으로 제작해서 한국의 멋진 둘레길을 UHD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있습니다.

3월 추진 계획입니다. 3월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기획 공모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맞춰서 현재 진행하

고 있는 정규 프로그램과 특집 프로그램들을 병행해서 프로그램들 본격 제작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이전 회의 의견 반영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2026 섬 박람회 관련 섬 콘텐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망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조직위와 MOU를 체결하는 등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고 지금 제작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 등의 방송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템은 꾸준히 <라디오 전망대>의 토론 시간이나 법정 시간 이런 시간을 토대로 해가지고 꾸준히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및 전공의 문제 등의 지속적 관심도 필요를 요청하셨는데요. 지난 라전 취재기에는 2월 20일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라는 소식도 이렇게 저희들이 조명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만원사랑 캠페인이 오랫동안 캠페인을 하면서 조금 옛 영상을 그대로 쓰는 어떤 형식의 리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해서 영상을 리뉴얼해서 2월부터 송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수MBC에서 방영한 <15% 이야기>는 지방에서 거주하는 난임 부분의 일상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살아가는 궁극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그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사업센터장

1~2월 방송광고시장 어려운 상황, 침체. 광고 외 다른 아이템 도전중. 뮤지컬 시카고 매진하여 진행완료, 섬진강꽃길마라톤 4월 예정 하동군에서 MBC경남 주관으로 진행예정. 4000명 넘게 접수 중. 여수 거북선축제 등 대형 행사 입찰 참여하겠음.

3월 아카데미 첫 진행예정, 뮤지컬 명성왕후 30주년 전국투어 일정 6월 개최예정. 여수 문화관광부 주관 K-pop콘서트 등 문화행사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김대중 위원

임기 마지막, 새로운 사람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선순환이 되길 기대함. 여수의 문화, 산단을 중심으로 이야기 짧게 드리겠음. 지역 내 보듬어주는 문화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 기관 등 모든 분야에서. 내 지역민, 이웃. 타 지역과 비교해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지도를 해주는 타 지역과 비교해서 지적과 감사가 중심. 문화의 차이나 생각의 차이를 극복해서 서로 챙겨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음.

박병희 위원

의대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증원안하겠다(원점 재검토)는 교육부의 주장이 있었으며, 순천대 및 목포대는 의대신설문제를 교육부와 꾸준히 논의 중.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전남의대 신설 결의대회 진행예정. 향후 탄핵 인용 후 진행될 대선에서 민주당 공약에 포함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역 화학산업 및 철강산업 침체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안전한 산업환경을 갖춰야하며 이를 위한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대응하려고 준비중.

박성주 위원

기업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기업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부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 장년층인 40~50세대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는 프로그램이 필요. 마지막으로 여수, 전남동부권 시사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 해주길 희망함.

박병현 위원

홈페이지 주요뉴스, 이미 끝난 공연 포스터 관련하여 리뉴얼이 많이 늦음. 그리고 여수MBC가 직접 진행하지 않으나 지역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홍보해주시길 바람.

조애숙 위원

다양한 선거방식 등 투표, 선거, 개표 과정에 대해서 다뤄주는 예를 들면 외항선, 장애인 투표 등을 소재로 한 기획, 특집을 제작 해주길 희망함.

나민수 위원

여수 섬박람회 관련 2월21일 방송 - 섬박람회와 섬방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섬 방문의 주요 포인트, 전시관 설치와 관련된 사항, 체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건지 점차적으로 방송으로 다뤄주길 기대. 섬 관련하여 산단 기업들 노후화된 전기시설 유지보수, 경로당 물품, 학교 학습용 전자기기 섬 주민들에게 기부하고 있음. 관련 사항 보도해주길 기대.

2월18일 석유화학산업단지 위기관련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원책과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필요. 여수산단만의 현황과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하여 자세히 보도 필요(여수 지역은 중소기업이 산업구조상 대기업에 종속된 상황)

전기료 인상 산업별로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들과 지속해서 위기대응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나 의견 반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안인수 위원

20대 직원들과 간담회 방송이 볼 게 없다. 탄핵, 트로트. 여수MBC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 콘텐츠의 편향성 지역방송국은 이러한 상황을 잘 감안해서 위기를 타개하길 바람.

여수산단은 위기이나 여수산단 직원들은 큰 위기가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 지역 중소기업들이 큰 위기다. 위기대응선제지역 대응이 안되는 이유가 지역 지정 조건이 미충족. 산자부에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담당 지자체인 여수시는 발빠른 움직임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위기대응지역 지정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기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 독려의 역할 필요.

박소정 위원

뉴스앤이슈 주요현안에 대하여 진행자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지역민들의 주요 질문까지 이어져 할 수 있기를 바람.

초등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 교육부의 대책에 대한 후속보도 필요. 광양구봉산 스페이스워크 건설 관련 조성의 목적과 효과 등 심층 취재 필요. 2월14일 '지역환자를 잡아라' 보도 좋았음. 병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지역병원을 방문. 지역의 병원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보도 좋았음. 특정 병원이 아닌 다양한 병원이 주목받길. 지역민은 좋은 병원을 요구함. 병원시스템, 의

사들의 의술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보도가 지속해서 필요. 회사 홈페이지 적극적인 관리 필요. 프로그램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시청자의견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지역의 정서문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언론의 역할이 필요. 또한, 고령사회(지역의 나이드신 노인분)의 삶을 다뤄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음. 지방자치 30년 과 지방분권의 문제 - 지방분권의 문제를 더 깊게 다뤄보는 특집이 필요. 마지막으로 개헌과 관련하여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담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며 글로컬 대학 진행상황과 실험의 결과물이 주목하는 프로그램 필요.

김종은 위원

여수MBC 뉴스데스크 타이틀에 지역의 이야기가 나눌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바람. 메디컬 UAM, 동부권 닥터헬기(안전한 산업단지 구축의 일환이라고 생각)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해주길 바람. 그리고 지역 업체, 지역물품 위주로 사용.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체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보도 필요. 마지막으로 교육 관련하여 보편적인 교육, 과밀학급 발생, 도서지역 교육소외학생 특별 케어에 대한 내용 다뤄주길 바람.